

소설, 삶을 담는 그릇



'내가 떠난 방'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져온 것 혹은 두고 온 것
: 어떤 물건을 갖고 온 것이어도
좋고 마음을 두고 온 것이어도 좋을
개인적 경험과 이유 글로 나누기

글쓴이 김애란 작가와
함께한 시민 46명

소셜, 삶을 담는 그릇

발행일 2025. 10.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총괄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지은이 김애란 작가와 함께한 시민 46명

*이 책은 2025년 9월 독서의 달 김애란 작가와의 만남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의 기타 사업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글쓰는이 오원희

오늘정말감사하게도 왜단
편을쓰시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어요

글쓰는이 박종수

두고 온 것~펼쳐진 책~다른
시간 속의 이야기를 읽다가
저의 현실 속 시간으로 나오니
다. 동시에 여러 시간을 사는
기분입니다.

글쓰기 박민관

"여름나라에서 태어난 그를 그 곳에 둔 채로 나는 내가 태어난 겨울나라로 돌아왔다. 여름나라는 마땅히 닿게될 내 삶의 종착지라 생각했기에 자연스레 나에게도 해방이, 포근한 안식이 찾아올거라 믿었다. 그러한 믿음에 나는 그를 구원자라 여겼고, 그는 나의 1순위가 되었다. 1순위. 그것은 무조건적인 추종이자 단단한 서약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엄정한 규율이었으며 삶의 변태를 염원하며 거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도, 내가 걸었던 주문도 나를 구

하진 못했다. 구원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나는 알았다. 세상엔 구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도, 구원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라는 걸.

그 긴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며 내가 여름나라에 두고 온 것을 바라본다. 해피엔딩에 골인하지 못한 착잡함을, 머지않아 빛바랄 기억에 대한 아쉬움을, 그의 청춘을 낭비시켰다는 미안함을, 비워진 흔적에서 느끼는 허전함을, 남겨졌다는 두려움을, 그리워질 마음을."

글쓴이 이미진

"내가 떠난방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자신
감을 가지고 독립했습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난 늘 당신들의 딸이라
는 마음을 두고 나왔어요"

글쓴이 제비동자

"오늘 아침 출근길 집을 나서며 내가 떠
난 방에 세상에 다시 없을 물건을 두고
나왔네.
한시도 손에서 떠나 보낼 수 없는 그것,
나의 온 세상이 담긴 그것은 휴.대.폰.
나는 오늘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덕
분에 아주 오랜만에 할가분한 하루를
보냈다네."

글쓰는이 쑤엔

"내가 떠난 방은 결혼 전의 내 방.

집에 있는 방 중에 가장 작았던 그 방에는 첫월급을 털어 샀던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00권과 대학 시절 사 모았던 소설과 시집이 꽂혀있었다.

결혼 후에도 이사할 때마다 꾸역꾸역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처럼 번호 순대로, 가나다 순으로 꽂지 못하고 이사했을 때부터 이사갈 때까지... 그냥 들고 다니게 되는..."

글쓰는이 속초앞바다

그동안 다수의 소설을 발표 했는데요. 스토리를 구성할때 가장 힘든것은 어떤 경우 일까요

글쓰기 말랑

"11살, 10년을 동생과 함께 지냈던 우리의 방과 이별.

내 머리에 처음으로 기억으로 남는 이사 전 날의 밤에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잔다는 사실이 왜 슬펐을까요? 눈물 몇 방울로 그 밤을 보냈던 11살의 그 날이 기억나요."

글쓰기 강보민

20대, 캐나다 토론토의 한 콘도에 목각 인형을 두고 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올때, 다시 캐나다로 이주를 하러 간다면 그 인형이 맞아주길 바랬는데, 저는 그 뒤로 쪽 한국에 남아있고 곧 마흔이 가까워집니다. 그 인형은 저의 방황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설렘과,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지고, 그 작은 방에 아직 남아있을까요?

글쓰기 온

너는 세상으로부터 배제 될 수 있다는 사실. 비록 가족일지라도. 그러니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 내가 떠남으로 온전히 비워진 그 방을 떠나오며 내가 가져온 다짐.

글쓰기 수진

저의 2,3,40대 곳곳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작가님의 강연에 오면서 집에 있는 작가님 책들을 챙겨보았습니다. 그 사이 사는 곳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작가님 책과 그 사이 세월의 먼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어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진 소설의 내용, 그런데도 그때 소설을 읽으며 느꼈던 감탄, 경탄, 비애감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두고온 것과 가져온 것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콰아앙퍼어엉

"가지고 온 것, 두고 온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문에 상경하고 그러다 여전히 이 곳에 살게 된 30대 초반.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온 것도 같고 두고 온 것도 같은데, 희미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막연한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 나름의 큰 자부

심입니다. 쓰다보니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 잘 두고 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뒤돌아 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제가 떠난 방을 찾아가서 그것을 두고 오고 싶습니다."

글쓴이 hyeon

어떤 한 시절의 나를 오롯이 두고 오는 것 같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내게 일어난 다사다난한 사건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고 만다. 물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을 테다. 하지만, 내가 떠난 방은 어떤 날의 내 얼굴, 내 행동을. 또 언젠가 내가 몸에 두르고 온 바깥의 이야기들을 품고 또 다른 방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글쓴이 떡갈나무

고교시절 읽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집은 고향집에서, 대학생때 자취방에서도, 첫 직장에서도, 60살이 넘은 지금도 우리집 책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물어 있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에 오래시간을 함께 하고있다.

글쓰는이 유세종

내가 떠난 방이 아니라 나만 남은 방
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 마저 떠난 이
방에 조용히 혼자 머물며 방을 떠날
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떠난 이들
이 남긴 모든 아픔과 기쁨, 모든 영
광까지 껴안고 살고있는 방

글쓰는이 들꽃

"(두고 온 것) 타닥타닥 아궁이에
서 사그러지는 불꽃과 온몸이 녹아
내릴듯 따스했던 나무타는 냄새와
온기를 품은 그을린 구들장
(가져 온 것) 풀과 흙내음, 이끼끼
계곡의 눅진한 향 등 자연이 내어
주었던 아련한 추억들"

글쓰기 핑니

"부모님이 한창 좋을 유아 시절 , 저를 키워야하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갓난 아기 시절 몇 번 시골 할아버지 댁에 맡겨졌던 적이 있어요. 깍해봤자 한 두 달이었을 그 짧은 시간들이 저한테 억겁으로 느껴졌는지, 제 유년시절은 단편적으로 지내왔던 시골에서의 추억만 기억납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가끔 억울해 하십니다..)

그 유년시절이 상실이라고 느껴졌던 기간도 있었는데, 그 기억이 강렬했던 이유는 결핍만큼이나 채워졌던 또 다른 형태의 사랑 덕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 얘기를 쓰면 눈물이 나서 몇 번이나 그만두게 되는 것처럼요."

글쓰기 포트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학하며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가 사진 동아리입니다. 사진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동아리 방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 동아리 방을 제가 떠난 방으로 고르고 싶어요. 그곳에 두고 온 시간과 기억들이 그리워요.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여름 바람과 햇빛, 가까이서 공연을 연습하던 옆 방의 소리가 그리

울 때가 있어요. 동아리 전시를 준비하며 들락날락하던 때,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동기랑 같이 들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방에 갇혀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나름대로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에 들어가 느낀 소속감과 안도감은 절대로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글쓰기 속초앞바다

백일된 아이와 고향을 떠날때
부모와 형제를 뒤로하고 무료
했던 일상을 남겨두고 낯선 곳
인천으로 희망과 도전을 들고
왔다. 그 삶은 분주하고 고단했
다.

글쓰기 에센스

40년전에 떠난 전라도 어느 하늘아래
첫동네. 7남매가 싸우고 북적이며 살았
다. 막내인 나에게 이제는 보고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들과의
사랑과 갈등, 연민과 그리움. 추억이 가
득한 곳이 있다. 퇴직이 얼마 남지않은
내겐 꼭 한번 다시 가서 야산과 대밭과
논밭을 걸어보고 싶다.

글쓰기 **닌자요산**

"어려서 시골집에 다락방이 있었다. 언니 오빠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 놀았다. 그 곳엔 서울로 이사간 사촌언니들이 쓰던 교과서와 학생중앙 잡지들이 노끈에 묶인채 놓여 있었다.

이제 막 한글을 떼 어린 내가 읽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기억이 되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진지하게 몰입했던 시간은 갖지 못했다. 겨울이면 다락방에서 익어가던 홍시감처럼 맛난 과일을 맛보지 못한 것처럼"

글쓰기 징징이

"나는 그 무엇도 떠나지 못했다.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해서 전부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무엇이 갖고 싶었는지, 싫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서 이제는 갖고 있기만 할 뿐이다. 이제는 생김도 기억나지 않는 친구에게 받았던 어린시절의 날카로운 말도, 더 이상 안아보지 않으면서 곰인형을 머리맡에 두는 것도

결국 제때 떠나보내지 않아서,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을 두고 왔나보다. 지금 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내 일도, 한달 뒤에도 그곳에 남을 거라는 소망으로 꾸며진 나의 넘치는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글쓰기 따라

지금의 방으로 올 때, 그 전의 방에서 내가 먼저 챙긴 것은 황금 열쇠였다. 다른 물건들, 내 살림들은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도 그 황금 열쇠는 꼭 챙겼다. 황금 열쇠는 아버지가 내 생일에 혼자 살다보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 하고 마련해주신 금붙이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주신 유일무이한 물건이었다. 지금까지는.

얼떨떨하게 받은 그 황금 열쇠는 새로운 세계

의 문을 여는 도구라기 보다는, 내가 뭔가 망하고 지칠 때 도망칠 수 있는 안전지대처럼 여겨졌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나에게도 한 곳은 있어라는 든든함.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니. 또 그 열쇠의 환금 가치는 계속 올라가서 뿌듯하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 그 황금 열쇠를 꼭 챙긴다.

글쓰기 이주영

24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날, 엄마가 대학 갈 때 큰 맘먹고 들이신 나의 원목 책상을 닦고 또 닦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일찍 떨어져 살지 몰랐겠지요. 남편보다 의지하던 장녀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공허한 마음이 뒷모습까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시로 와서 책상에서 책도 보고 글도 쓰겠다고 하고 책상을 신혼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컴퓨터를 구입해 책상에 놓아드리고 엄마께 PC게임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곧 나의 빈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인터넷 맞고 만랩 왕고수가 되셨습니다.

글쓰는이 김영

"나만의 공간인 그 방은 어릴적 꿈이 서려 있었다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꼬방동네의 집처럼 낮고 잡동사니 물건으로 차 있었지만, 충만하게 좋았다. 지금도 공간을 떠 올리면 설렌다. 언니와 같이 있던 방에서 나만의 방이 생긴 뿔 듯이 기뻐던 추억이 그림 같다. 자유함을 가져다 준 다락방을 기억한다."

글쓰는이 인치정

"소설가는 자기집의 창문가에 많이 앉아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앓을까 소소한 것들을 많이 관찰 할 것 같다. 흔히 비아냥 거릴때 ""그 양반소설 쓰고 있네"" 아니고 칭찬하면 ""소설만큼 재미있네"" 라고 말 하는데.. 내 말은 뭘까 ?

2년전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는데 나는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짧지만 순수하게 살아 보겠더고 생각해 본다"

글쓰기 이수정

"직장

출근한 지 이틀째에 쓴 일기였다.

일하다 울 뻔했는데 참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내 질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해서 울었다. 밥 먹다가도 울 뻔했다. 라스트오더가 지났는데도 받아주신 게 감사해서 울었다. 밥이라도 먹어서. 집 가려는데 눈 앞에서 버스를 놓쳐서 또 울었다.

다음 버스가 40분 뒤에 온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오늘 하루는 되는 게 없다. 잘 취업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버티고 적응하고 이겨내야 성장하는 걸까.

난 그곳에서 버티지도 적응하지도 이겨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성장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정신차려보니 그랬다. 나는 그곳에서 성장한 나를 가져왔으며 그곳에 성장하지 못해 미숙하고 그래서 퇴근길에 울고 집에 와서 또 울던 나를 두고 왔다."

글쓰기 변지원

"학창시절부터 모아온 친구들의
편지

편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
랑을 많이 받은 것과도 같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들에게 사
랑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뜻하기
도 한다.

그 시절 주고 받았던 사랑
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한 개
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여러 개
그들 중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
더라도, 혹은 이미 끊어졌더라도
편지는 남아있을 것이다."

글쓰기 구선화

올해로 30년이 된 그 스탠드는, 1995년도에 이름이 사라진 회사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아버지의 책상에서 약 13년 가량을 지내다 14살이 되던 해 나에게 넘어왔고, 4번의 전등을 교체한 후에도 여전히 내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다. 기둥의 목이 한 번 꺾여서 얼기설기하게 접착된 그 스탠드는 9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와 가난으로 범

벅된 학창시절로부터 탈출하던 날, 내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이었다. 오직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어머니와 자식을 등졌던 아버지가 마침내 그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택해서는 아니었다. 그 꿈인지 미련인지 모를 것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반항이나 보복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내 책상 위에 있어야 마땅했기에. 오늘도 내 책상 위에서 빛날 뿐이다.

글쓰기 솔잎향기

"(시골 이웃집 방)

중학교 1학년때 인천으로 이사오면서
학교배정이 안되 한달간 시골 이웃집
에 머물렀었다.

그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갖게되
었고 마냥 부모님께 응석부리던 나는

두고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좀 뻥도있긴했지만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주긴했다.

그래서일까. 나의 사춘기는 성숙하
게 지나갔고 여러모로 부모님께 의
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정신적독립
을할 수 있었던것 같다."

글쓰기 곁정은

"<다정함이 살아 남는다>

6월 출근 길, 카톡이 울렸다. OO이었다.

""샘, 저 자퇴해요."" 숨이 턱 막혔다. 내
내 우려하던 말이었으나, 이제는 아니겠
지 안도하며 지내온 나날이 6개월여.내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다정함이 계속 존재
하지 못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고, 9월이면 수시 쓰

고, 그리곤 학교 안 나가도 되는데...고
등학교 졸업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7월에 OO이가 남친과 함께 나에게 왔
다. 명랑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갈거
라고 했다. 다행이었다. OO이 말했다.
엄마가요, '선생님 계셨으면 저 자퇴 안
했을거래요.'라고 말하니, 나는 다시 다
정함을 포갠다. 다정함은 살아남는다."

글쓰기 묘해

"제가 두고 온 것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 낯가림과 쑥스러움 때문에 삼켜버린 말들은 혼잣말이 되어 나 혼자만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원래 대화를 위해 존재하지만 내 말은 종종 목적지를 잃기도, 헤메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지거나, 내 속에서만 맴돌다, 그럴 때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는 듯하지만, 곧 아쉬움이 찾아와요. 전하지 못한 말

은 결국 나에게만 남기 때문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많은 혼잣말을 쌓아왔습니다. 그 말들은 공백이 되고, 침묵이 되고, 후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적어도 나 자신은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두고 온 말은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혼잣말로만 남겨둔 그 말들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으리라 믿어요"

글쓰기 황의실

친정집을 방문해서 어릴적 썼던 방 안에는 울투울통한 모습으로 서있는 졸업앨범이 나란히 책장에 서있었다. 늙어버린 오라버니는 그것을 가져가길 권했으나. 난 그냥 두고 나왔다. 추억보다는 아픔이 더 많기에.....

글쓰기 윤미자

"내가 떠난 방~
엄마가 세상을 이별한 후 고향집도 이별하게 되었다.
늘 텃밭에서 계셨던 엄마
그래서인가 엄마는 늘 그자리에 있을거라고
왜 그리 생각했는지
하지만 엄마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내 맘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글쓰기 단단

대학생활을 위해 대구 원룸으로 이사가기전
까지 내가 머물던 앓은뱅이 책상이 있던 나의
작은방 그곳은 나의 유년시절과 사춘기 시절
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금만 앉아서 공부
해도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서 자주 여러번
일어서야했던곳 작은방에 창문이 있고 이웃
집이랑 담벼락을 경계로 나뉘어진 곳 친구들
이랑 주고받은 쪽지부터 편지까지 옷장 서랍
에 켜켜이 두고 올라왔는데 .. 어느날 우리는

그집을 허물고 새집을 공사하게 되었고 나
의 보물이었던 추억의 편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지 그때 얼마나 슬프고 속상
했던지 .. 나의 전부가 사라진거 같고 나는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유년
시절 내가 꿈꾸고 지냈던 그 곳 작은 내방
나는 그곳에 나의 순수했던 마음과 동심
을 두고 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맘속
에 꾹꾹 잘 싸매놓은 추억보따리

글쓰기 문지정

"내가 떠난 방은 부모님과 같이 살던 작은 가게집에 있던 작은 방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할수 있던 게 많이 없었던 초등학교 시절,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게 되었다.50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해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찾게 된다. 일찍 결혼한 힘들어할때마다 나의 학창시절 잘했던 얘기를 해주신다.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으로 상을 탔던 얘기, 시험본후 성적표 등 노트 필기등 나의 학창시절 두고온 흔적들이 그립다."

글쓰기 두루미

평생 앞만 보고 사셨던 부모님께선 고
단했던 도시를 떠나 꽃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시골로 가셨다. 나도 그곳을
떠나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의
집에 살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애뜻함이 지금에서야 더 선명한 것은
부모님께서 지금 내 곁에 안계시길 때
문일까.

글쓰기 홍정화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느끼
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라는 공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
여와 어떻게 해소하고 담아두어
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
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글쓰기 산하늘

"대학시절 자취방에 걸려 있던 운동 주님의 '서시' 액자를 다시 되가져오고 싶다..

작가님처럼 고향 떠나 홀로 상경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단칸방 벽에는 꿈과 희망, 삶의 방향이 걸려 있었다.

힘들고 지친땐 늘 그 문구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는데...

이십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때에 비해 모든 것이 여유로워졌는데, 마음만은 점점더 작아져 가을날 나뭇잎보다 작고 가벼워진 것만 같다.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마음과 다짐들을

되가져보고 싶어졌다.

서시 — 윤동주

한점 부끄럼없는 삶이고자,
작고 어린 것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
스함이 스러지고 있는 지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
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겠다..."

글쓴이 김혜민

거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작은 빌라에 내 방은 옆으로 미는 슬라이드 형식의 문이 달려있었다. 거실이 좁으니 내 방은 거실의 확장처럼 항상 문이 열려있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밤이나 되어야 볼 수 있었고, 하나뿐인 언니는 그래서 하나뿐인 사람인 나를 찾았나보다. 하교 후에 나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했고, 언니는 거실과 내

방 사이에 몸을 걸치고 누워 잠을 자곤 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 네 방 가서 자라며 신경질을 냈다. 그때는 닫을 수 없는 방문이 미웠다. 지금은 그 방, 그 집을 떠나 언제든 닫을 수 있는 문이 생겼고 언니도 더이상 불편하게 문틀을 베고서 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을 떠나고서 이제야 그 마음을 생각한다. 나는 두고 온 것이 있는 듯 그때를 기억한다.

글쓰기 김세경

(은반지) 대학교 3학년 때 골초인 선배집에 그냥 놀러 갔었다. 냉동실에서 담배를 꺼내는 모습에 놀란 기억이 있다. 30여년 전이다. 유달리 손가락이 굵었다. 굵은 손가락 사이에 걸쳐진 차가운 담배와 연기가 참 멋있었다. 그날 나는 선배집에서 은반지 하나를 가져왔다. 아마도 선배 몰래. 왜냐고? 모르겠다. 너무 굵어서 내 손가락에

는 많이 험거운 반지였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녀간 선배방에서 그 반지를 들고 왔다. 그 반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뜻모를 죄책감이 있다. 그 선배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서 가지고 온걸까 자문해 보지만 아직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반지를 볼 때마다 뿌연 죄책감이 그날의 담배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 오른다.

"내가 떠난 방
나만의 방을 갖는 것이 소원일때가 있
었다. 형제 많고 가난하고 고단했던 어
린시절 딸부자집 큰딸은 안그런척 살았
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그집을 떠나서
나만의 방을 갖고 싶었다. 자취방의 친
구를 부러워하며 우리가 서울로 이사하
지 않았다면 나두 독립할 수 있었을텐

데. 그 기회마저 빼앗겼다. 어느날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귀중품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집에 나쁜 기운때문에 혼자
못 간다며 몇달을 함께 자취방에 지낸적
이 있다.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못한 현
실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의 첫집은
무조건 아파트여야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굳혔다. 서울에 내집 한

칸 마련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도 조금이나마 갖고 있던 전답을
팔아 강남의 소형아파트를 두채를 산 엄
마는 월세를 받고, 재테크에 성공했다하
나는 17평 집이 지루했다. 그때부터였을
까 결혼해도 내방은 꼭 있어야돼. 한칸
짜리 집은 싫다고 우겨서 경기도의 미담
이 문이 있는 방 두칸으로 신혼집을 구했

다. 엄마가 한칸짜리라도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했지만 좁은집을 탈출하고 싶었
다. 그렇게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져 갔
다. 지금은 서울에서 더 멀리 인천에 산
다. 넓은 집은 얻었지만 서울에서 더 멀어
졌다. 지금 사는 내방과도 이사로 헤어져
야한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다."

글쓰기 설령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중국 남쪽에 있는 한국 기업에 들어갔다.

산업 초급 원자재를 생산하는 곳이었고, 규모도 꽤 컸다.

월급은 한화로 백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대신 회사는 원룸 비슷한 오피스텔을 숙소라며 내주었다.

처음 들어섰을 때 방은 이미 눅눅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남쪽이라 늘 습했고, 벽지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에도 축축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주방은 없었다. 작은 싱크대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을 뿐, 물이 튀면 곰팡이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졌다.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내 방이 아니라 공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은 내 생애 첫 자

취방이었다. 불빛이 약간 노랗게 번져드는 좁은 방에서, 나는 스스로의 시작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일 년 육 개월이 지나자, 그 방도, 그 회사도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퇴사를 결심했고, 결국 나는 곰팡이 냄새에 젖은 나의 첫 방을 떠났다."

"어쩌다 손바닥만한 액자 하나가 그 산골에서 부터 여기 도시까지, 그 촌뜨기 국민학교 아이일 때 친구에게 산 액자 하나가 60이 되어가는 내 곁에 있게 된 것일까!

성모 마리아상으로 알고 있던 액자 속 사진은 1년 전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야 수녀님인 것을 것을 알았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일 것을 알고 그토록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물렀던 것일까?"

글쓰기 정답

"어릴 때, 아빠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일렬로 꽂힌 책 사이로 미처 자리를 찾지 못한 책의 책등도 칸칸이 짹 찼다. 그 사이로 제법 통통한 빨간색 돼지저금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뽕그랑', '탁탁'. 동전과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동전이 들어갈 때의 소리와 파장은 동전의 크기만큼 다양했다. 가령 두루미가 그려져 있는 오백 원

짜리 동전은 묵직하게 '툭' 떨어지곤 했다. '저금통에 제법 돈이 많이 들었나 봐.' 아빠가 붙인 누런색 테이프를 곱게 떼어내고 오백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일주일 정도 모은 돈은 꽤 컸다. 초등학생이 된 나는 이제 시시하게 조그맣고 네모난 정육면체 캐러멜을 사서 먹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묵직한 돈을 가방에 넣고만 있어도 큰 부자

가 된 듯했다. 완벽한 증거 인멸을 위해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고이 가방에 보관하고 다니다가 엄마에게 들켰다. 파리채 자국이 손바닥에 시뻘건 두 줄로 남았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아빠가 뭔가 이상하다고. 자꾸 돼지저금통의 위치가 달라진대.""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까.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방을 정리했어. 돼지저금통이 있는데 꽤 묵직하네. 모아서 손주들 주려고 그랬나 봐. 은행에서 지폐로 바꿔서 가져다줄게."

정리해야 할 다른 일도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빨간색 돼지저금통. 이게 대체 몇십 년 된 저금통일까?

아빠가 평생에 매일 했던 습관들이 있다. 신문 분야별로 오리고 붙여서 스크랩북 만들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쓰기. 그리고 동전 모으기. 세월이 지날수록 스크랩북의 주제는 좀 더 건강에 관한 주제로 옮겨갔다. 자연식으로 치유하기, 채소 먹고 무병 장수하기 등의 글이 아빠의 관심사였다. 집안 어지럽다고 엄마는 싫어했고 쌓아둔 스

크랩북에 다른 가족은 관심 두지 않았다. 남동생과 남편이 아빠의 장례식을 마친 뒤, 유품을 정리했다. 두 사람이 바쁘게 내용과 표지를 분리하여 봉투에 넣을 동안 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봤다. 아빠의 필체로 기록을 남긴 일기장은 고민하다가 최근 5년치만 남겼다. 그렇게 하여 아빠의 유품은 일기장과 돼지저금통만 남게 되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다. 아이들에게 체크 카드를 만들어 준 뒤로는 동전이 생기지 않아 좀처럼 돼지저금통이 불룩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지갑에 동전이 몇 개 모이면, 일부러 돼지저금통을 찾는다. 福이라고 적힌 빨간 저금통에 아이들이 동전을 넣는다. 아이들은 이걸 모아서 무얼 살지 고민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다. 요

즘 유행하는 물건이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웃는다. ‘툑’ 떨어지는 동전 소리처럼 내 심장도 ‘툑’ 떨어졌던 그 날의 기억도 많이 희미해져 웃을 수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돼지저금통을 보며 다른 이야기도 쓸 그 날을 믿으면서."

글쓰기 달밤

"11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사했던 그 집은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 가장 좋았다. 가지고 온 짐은 다 들여놓을 수도 없어서 한동안 쌓여있어야 했다. 엄마는 아끼던 항아리 뚜껑이 다 깨져서 한숨을 내쉬었고, 자취를 하던 오빠까지 다시 모여 네 식구가 살게 된 집은 웅색하기 그지 없었다. 처음 인천으로 이사를 온 날의 풍경은 그랬다. 나는 우리집이 망해서 이사를 한 줄

알았다. 아빠의 일자리 문제가 있긴 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날의 분위기가 내 생각에 확신을 주었던 것 같다. 끝없이 이어지는 엄마의 한숨 소리 덕에 그 집은 꼭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곳에 살았고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올릴 때 늘 생각나는 장면이 그 집에 있던 내 방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망한 사랑의 노래 같은 것인지.

나의 파란만장했던 10대 시절을 나는 거기서 보냈다. 어쨌거나 오롯이 내 방이었던 그 곳에 내가 가득 담겨있었다. 그 방에서 했던 일이라고는 라디오 듣기,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사부작거리며 뭔가를 만

해보면 내 생애 유일하게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기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주 사소한 일들도 크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중2병의 축복인 듯 하다. 그 시절 홀로 있던 내 방을 떠올리며 오늘의 행복을 위해 나에게 집중해본다."

함께한 소감

공간이라는 맥락을 짚으며 이야기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좋은 분을 초청해 주시고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좋은 연사님들을 초빙해주셔서
인천 시민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주셔서 너무 좋은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과의 만남에 직접 소리로 듣고 책을 쓰게된
작가님의 배경 의중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말씀도 너무 위트있으면서 명료하게
전달이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글쓰기 까지 있어서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의 섬세함이 느껴졌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주세요

작가님의 살아온 얘기, 공간에 대한 소설 얘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모두 좋았습니다.